

“같은 감정 공유하자 비슷해진 느낌”

변요한,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인1역으로 출연

“일부러 닮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흉내를 내다보면 연기의 자유로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하다보니 조금씩 비슷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연기한 거죠.(웃음)”

배우 변요한(30)이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감독 홍지영)에서의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가 2인 1역을 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한수현’이 바로 그 남자인데,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느 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을 얻게 되고 그 약을 통해 그토록 보고싶어했던 한 사람을 찾아나선다. 그러니까 변요한은 30년 전의 한수현이다. 현재의 한수현은 배우 김윤석이다.

이 작품은 독특한 멜로물이다.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등장해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여배우의 비중이 낮고 두 명의 한수현이 그들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한수현을 연기한 변요한과 김윤석의 연

기 호흡이 중요한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의 한수현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그대로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던 그것도 안 되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외모는 분명히 다르지만, 극 중 변요한과 김윤석은 닮아 보인다.

물론 변요한의 한수현은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하고, 김윤석의 한수현은 세월의 흐름 속에 차분히 가라앉은 인물이니. 그러나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걸아가는 뒷모습은 묘하게 닮았다.

“선배님(김윤석)과 첫 날 연기를 하는데, 대사가 딱 붙더라고요. 에너지와 기운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에서 어떤 교류가 느껴졌어요. 그때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와 선배님을 닮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변요한이 김윤석과 호흡을 맞췄다는 것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변요한의 첫 상업영화 주연작이다.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스틸컷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드라마 ‘미생’(2014) 이전에도 그는 스타였다. 다수의 독립·단편영화들을 거치면서 그는 독립영화계 신성으로 불렸다. 그런 그는 케이블 TV 드라마로 이름을 알리고 지상파 TV 드라마(육룡이 나르샤)로 영역을 확장해나니 이제는 주류 영화계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상영권이 많아졌다는 것 정도를 빼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작업 방식이 달라질 건 없으니까라고 말했

다 또 “독립영화를 할 때와 똑같은 감흥이다. 영화를 볼 때는 항상 긴장된다. 또 영화가 잘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변요한은 이 작품의 메시지를 “크게 보자면 사랑”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해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사랑이 되는 것 같더라” 사랑이 파생하는 순간들에 대한 소중함이랄까요.”

/뉴스시스



이승엽, ‘2016 일구상’ 대상 수상

‘라이언킹’ 이승엽(40·삼성 라이온즈)이 2016 일구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엽은 12일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유홀에서 열린 2016 휘슬러 코리아 일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품에 안았다. 이승엽은 올 시즌 통산 600홈런을 치며 노력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다. 모든 프로야구 선수의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관리를 선보였다.

이승엽은 “상을 주신 일구회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적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렸어부터 최선을 다한 모습에 상을 준 것 같다. 내년 시즌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고 타자상과 투수상에는 타격 3관왕의 최형우(33·KIA 타이거즈)가, 2년 연속 15승 이상을 기록한 유희관(29·두산 베어스)이 선정됐다.

또 신인상에는 오랜 무명 설움을 떨치고 예이스로 변모한 넥센의 신재영(27)이, 의지 노력상에는 대장안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주역 NC 다이노스의 원종현(29)이 뽑혔다.

넥센의 마운드를 탄탄하게 만들었던 손혁 전 넥센 투수 코치가 지도자상에 선정됐으며, 심판상은 경력 20년을 자랑하는 전일수 심판위원이 뽑혔다.

특별공로상에는 불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와 스포츠 투아이故 박기철 부사장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올해 메이저 리그에 도전한 김현수는 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故 박 부사장은 한국 프로야구의 기록 분야를 개척·발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근기자

월드컵 3연속 2관왕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중요”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19·한국체대)가 안방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내린 월드컵 3차 대회를 마친 심석희는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1월 윈 발 봉와지염 부상으로 인해 2015~2016시즌 월드컵 5, 6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심석희는 올 시즌 ‘여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심석희는 그와 함께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최민정(18·서현고)과 나란히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2관왕에 등극했다.

그는 주종목인 1500m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또 월드컵 1~3차 대회에서 대표팀의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다만 키가 큰 탓에 약점으로 꼽히는

500m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심석희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여자 500m 레이스를 펼쳤지만, 준결승에서 1조 3위에 그쳐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심석희는 “봉와지염 부상은 완전히 나은 상태다. 월드컵 3, 4차 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1, 2차 대회를 마치고 체력이나 기술 훈련을 많이 했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 500m는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월드컵 3, 4차 대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월드컵 3, 4차 대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월드컵 4차 대회는 안방에서 개최된다. 게다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열린다.

월드컵 4차 대회는 16~18일 강릉 아이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내린 월드컵 3차 대회를 마친 심석희는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스 아레나에서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펼쳐진다.

심석희는 “올림픽이 열릴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며 “올림픽을 치를 장소인 만큼 좋은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홈 이점을 살리려면

많은 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심석희는 “나름이다. 경기장마다 빙질이 다르니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만큼 심해지는 다른 나라의 견제를 이겨내는 것도 관건이다.

/김민근기자

박태환,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관왕

박태환(27)이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박태환은 1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4분5초51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앞서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와 자유형 200m를 제패한 박태환은 장거리인 자유형 1500m까지 제패하면서 금메달 3개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 8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전 종목 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은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50m)과는 다른 25m 레인에서 대회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2년 전 카타르 도하 대회에서 그레고리오 팔트라니에리(이탈리아)가 세운 14분16초10의 대회 기록을 0.59초 앞당겼다. 그레고리오가 갖고 있는 14분8초6의 세계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선 2위로 통과한 박태환은 중반까지는 경쟁자들과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했다. 박태환은 850m 지점부터 선두로 치고 나간 뒤 끝까지 1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는 47초09로 7위를 차지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